

# 후 타이어 수리 중 '핑' 정비사 40여m 날아가 숨져

### 여수 '퀵' 운반 차량...1명은 크게 다쳐

컨테이너 운반용 차 바퀴를 수리하던 중 타이어가 폭발, 정비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8일 오전 8시10분께 여주시 중흥동 전라선 흥곡사역에서 D운송회사 소속 정비사 최모(32)씨가 머리와 팔다리 등에 상처를 입고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에서 함께 작업하던 박모(40)씨도 오른쪽 무릎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오른쪽 뒷바퀴 1개가 빠진 컨테이너 운반용 차(reach stacker) 1대가 있었으며, 숨진 최씨는 약 4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손상된 바퀴는 차에서 약 9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리치스태커' 바퀴는 모두 6개로, 각 바퀴는 ▲무게 100kg ▲지름 1m 50cm ▲두께 56cm다.

광주 K정비업체 관계자는 "대형 차량의 경우 중량 때문에 사고로 타이어를 찢길 경우 타이어와 휠 사이에 엄청난 공기압이 생긴다"며 "차량을 정비하거나 운전 중 휠이 손상될 경우 타이어가 휠에서 튕겨나가는 등 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타이어 공기압(空壓)의 단위인 psi (pound per square inch)는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며, 1cm당 1.5~2kg이 표준이다.

사고가 난 '리치스태커'의 공기압은 140~160psi로 ▲일반 승용차(30psi) 5배 ▲RV 차량(40psi)보다 최고 4배나 높다.

정비사들은 "펑크가 나지 않아 안전하다는 레이디얼 타이어도 공기압이 낮으면 소용없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는 매년 2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타이어 파손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승배 기자 lsb54@kwangju.co.kr

자동차 정비 중뿐만 아니라, 겨울철 운전 중엔 타이어 공기압을 유심히 체크해야 한다. 외부 기온이 10도 떨어질 때마다 타이어 공기압은 2.6psi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압이 낮으면 마찰 면이 넓어져 열이 더 자주 발생하는 등

## 겨울철엔 공기압 꼭 체크해야

타이어에 무리가 간다. 공기압을 30% 정도 낮추고 급회전을 하면 타이어가 휠에서 떨어져

나간다.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타이어를 회전시키면 타이어 모양이 바뀌면서 결국 터진다. 차량

정비사들은 "펑크가 나지 않아 안전하다는 레이디얼 타이어도 공기압이 낮으면 소용없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는 매년 2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타이어 파손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승배 기자 lsb54@kwangju.co.kr



조선대 예·체능계 실기고사 발표할 예정이다.

200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18일 조선대 미술대학 등에서 치러진 200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나·군·예·체능계 실기고사'에서 수험생들이 미술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조선대는 오는 23일 합격자를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7·31교육위원회에 출마한 친인척을 위해 학교 운영 위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 이모(여·45)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교육위원 선거 기부행위자 등 무더기 벌금형 선고

양주 등을 나눠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지역의 교육위원 후보 박모(66)씨와 학교 행정실장 김모

(41)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벌금 40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전남지역 교육위원 후보로 출마한 뒤 초등학교 운영 위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이모(여·64)씨와 광주지역 교육위원 후보로 출마, 유권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전달한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벌금 15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피싱 사기' 조심

### 사이버머니 등 가로챈 고교생 검거

광주·전남 등 260명 피해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유명 게임사이트를 모방한 '피싱(phishing)사이트'를 운영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고교 2년생 김모(17·경기도 남양주시)군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9월부터 국내 유명 게임사이트인 '바람의 나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만든 뒤 광주·전남지역 등 이용자 260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게임아이템과 사이버머니 등을 가로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은 인터넷에서 '피싱사이트' 제작용 프로그램을 입수한 뒤 직접 서버까지 임대해 '피싱사이트'를 개설,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무료로 게임아이템을 제공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공지사항을 꾸미고 이용자들에게 유명 게임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사이버경찰청에 '바람의 나라'와 관련된 해킹 사건이 잦다는 민원 접수와 잇따라 이메일 주

▲피싱(phishing)=금융 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 인증번호·신용카드번호·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개인 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조어(造語)다. 화면에 표시되는 사이트의 광고창 등 팝업(pop-up)은 '가짜'다. 사용자가 팝업에 표시된 입력란에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

적 등 사이버주적 기법을 통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PC방에서 범행 중인 김군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상에 많이 퍼져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사 피싱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이 피싱사이트에 잘 속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식 사이트의 웹주소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나원침 (7032) 김장동



평택선도서점 중심특별을 누리는 3.636 최대단기! (특별한 40% 할인 혜택도 포함!) 수권선도서점 피오리 062-367-9000

## 얼굴은 속여도 지문은 못속여

### 역대 사기범 성형·호적 정정... 끝내 붙잡혀

30대 여 범행 7개월만에

역대 사기행각을 벌인 뒤 얼굴 성형과 이중호적으로 완전범죄를 노리던 30대 여성이 범행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문모(여·34·안도군)씨는 지난해 6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 모 법무사 박모(50)씨에게 "법인 명의로 문중 땅을 매입하는 데 통장 잔고증명이 필요하다"면서 3억원을 가로챘다.

문씨는 경북 포항으로 도주한 뒤 자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원씨' 호적을 사용해 아파트를 구입했다. 또 서울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3천만원을 주고 턱을 깎는 안면 윤곽 수술과 눈·코·이마

등을 얼굴 대부분을 성형하고 '원씨'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문씨가 사는 포항의 D아파트까지 찾아내 문씨의 사진을 쥐고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헛수고였다.

범행 당시 문씨의 얼굴과 완전 달라 아파트 주민들도 사진 속의 얼굴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씨가 '이중호적자'인 것도 수사에 걸림돌이었다.

경찰은 문씨를 찾아내 조사를 벌였지만, 문씨는 원씨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끝까지 신분을 감춰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 '장체'를 밝혀냈고, 결국 문씨는 범행 7개월 만에 꼬리를 잡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취업사기 40대 영장

광주 동부경찰은 18일 구의원에게 부탁해 아들을 농협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배모(56)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주모(43)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 찜질방 '10대 커플' 도둑' 덮기

○찜질방에서 기거하며 다른 손님들의 금품을 훔친 10대 '커플'이 경찰에 덮기.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18)씨와 애인 김모(18)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0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S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강모(41)씨의 옷장 열쇠를 훔친 뒤 금품을 몰래 가져가는 등 7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도둑질했다는 것.

○이씨 등은 훔친 돈으로 찜질방 입장료를 지불하며 한 달 가까이 머물렀는데, 수표를 인근 마트에서 사용했다가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고.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기스타·세기보청기.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채로운 무인재발 개성있는 세기 보청기.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기스타·세기보청기.